소백산/소백산(비로봉)(역사성7, 인지도10, 접근성4, 연결성10)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와 순흥면 배점리에 걸쳐 있는 산.
소백산 비로봉(毘盧峰)[1,439.5m]은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와 순흥면 배점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소백산의 최고봉이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백산 주목군락[천연기념물 제244호]과 노랑무늬붓꽃 특별보호구역이 있으며 매년 소백산 철쭉 군락지 일대에서 영주소백산철쭉제가 개최되고 있다.
비로봉은 산봉우리를 영험하게 여겨 불계에서 명명한 지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로(毘盧)'는 비로자나(毘盧遮那)의 준말로 몸의 빛과 지혜의 빛이 법계에 두루 비치어 가득하다는 뜻이다. '부처의 진신을 일컫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다.
비로봉의 북동쪽은 국망봉[1420.8m]으로 능선이 이어지며, 남서쪽은 제1연화봉[1,394.4m]과 제2연화봉[1,357m]으로 능선이 뻗어있다. 주요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정질 편마암과 흑운모 화강암질 편마암,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로봉의 북서사면[1,200~1,350m]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소백산 주목군락[천연기념물 제244호]이 있다. 이곳에 자생하는 주목들의 평균 수령은 약 350년 정도이고, 총 본수는 3,798본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주목 군락지이다. 또한, 비로봉의 서쪽 능선에는 노랑무늬붓꽃 특별보호구역이 있다. 노랑무늬붓꽃은 붓꽃과의 여러해살이풀로, 4~5월에 백색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있는 꽃이 핀다. 비로봉 일대에는 철쭉 군락지도 있어 매년 5월 철쭉제가 개최되고 있다.
비로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풍기읍 수철리에서 희방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와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에서 석륜암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가 대표적이다. 첫 번째 코스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희방폭포가 나오며 제1연화봉으로 이어져 비로봉에 도달하게 된다. 두 번째 코스는

죽계구곡, 초암사, 석륜암계곡을 지나 돼지바위 부근에서 서쪽 능선을 따라가면 비로봉이 나온다. 비로봉 아래 비로사에는 영주 삼가동 석조당간지주[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7호]가 있으며, 2019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여우가 반한 소백산 철쭉'이라는 주제로 2019영주소백산철쭉제가 개최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영주문화대전)








소백산국립공원 탐방안내도
※ 문의처
경북 : 소백산사무소 (054-638-6796)
충북 : 소백산북부사무소 (043-423-0708)
어의곡매표소
을전
6.1km
2시간 30분
2시간
천동매표소
4.3km
2시간
1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5.1km
천동쉼터
1시간
2.5km
비로봉
(1439m)
국망봉
(1420m)
삼형봉
1시간 20분
3.1km
7.3km
3시간
6km
3시간 10분
2시간 10분
비로사
초암사
초암매표소
3시간
삼가야영장
삼가매표소
연화봉
(천문대)
제2연화봉
제1 연화봉
2시간
죽령매표소
2시간 30분
1시간 45분
4.4km
⑤단양
7km
⑤풍기
4.5km
1시간 50분
2시간 20분
희방사
희방야영장
희방매표소
1시간
2km
9.2km
5시간
시맥골
사동리
도솔봉
희방사역
남천리
남천야영장
3시간
4시간
1시간
7.7km
신선봉
형제봉
1시간 30분
2.8km
새목
의풍
고치령
늦은덕이재
마당치
1시간 30분
2.8km
3시간 30분
8.2km
3.6km
좌석
좌석리(연화동)
3시간 30분
7.5km
남대
마구령
부석
4.7km
2시간 30분
갈곶산
40분
1km
30분
늦은목이
부석사
봉황산
탐방로
등제탐방로
올라가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
매표소
산 봉
기점표시
연결도로
화장실
※구간별 소요시간은 현지기상과 개인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죽령(역사성8, 인지도5, 접근성10, 연결성10)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를 연결하는 고개.
죽령(竹嶺)[689m]은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와 충청북도 단양군의 대강면 용부원리를 이어주는 고개이다. 죽령은 영남지방과 경기 및 호서지방을 연결하는 문경새재, 영동지방의 대관령과 함께 3대 관문 중 하나로 꼽힌다. 죽령에는 조선시대 세조 연간 안동도호부 남문루에 있던 동종이 오대산의 상원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죽령을 앞에 두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죽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158년(아달라왕 5)에 죽죽(竹竹)이라는 자가 길을 열어 고개를 개척하고 지쳐 순사 해, '죽령(竹嶺)'이라 불렀다고 하며, 죽죽을 기리기 위한 죽죽사(竹竹祠)가 지어졌다고 전한다. 죽령과 관련된 이야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158년 3월 죽령을 열었다."라는 대목에서 '죽령'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죽령은 군 동쪽 30리, 경상도 풍기군 경계에 있다. 죽령사(竹嶺祠)는 사전(祀典) 소사(小祀)에 실려 있다. 봄, 가을로 향과 축문을 내려 치제(致祭)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죽령'이라는 지명은 고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동지도』, 『1872년 지방지도』, 『대동여지도』 등에 '죽령'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죽령은 소백산 최고봉인 비로봉[1,439.5m]에서 제1연화봉[1,394.4m]-연화봉[1,394m]-제2연화봉[1,357m]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남동쪽의 흰봉산[1,261m]에서 북쪽 1,231m봉으로 뻗어있는 능선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죽령 일대 능선을 분수령으로 하여 북서쪽으로는 유역면적 130.19㎢, 길이 11.3㎞의 죽령천이 발원한 뒤, 서북서류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부근에서 남한강에 유입한다. 죽령천을 따라 높이 약 2.7m의 죽령폭포가 나타난다. 죽령의 남동쪽 유역에서는 유역면적 108.01㎢, 길이 23.24㎞의 남원천이 남동류하여 흐른 뒤 영주시 창진동 인근에서 서천에 합류한다. 죽령 일대의 지질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비로봉에

서 남서쪽으로 뻗은 능선과 흰봉산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능선은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 화강암질 편마암과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이 협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두 지질의 분포는 대략 북동-남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산줄기의 방향과 일치한다. 한편 죽령을 넘어 단양군 쪽에 다다르면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캄브리아기의 조선계 대석회암층군 천동리층과 풍촌 석회암층이 역시 북동-남서 방향으로 나타나며 석회암, 셰일, 사암층 등이 교호되어 있다. 죽령을 따라서는 북서-남동 방향의 구조선이 지나가며 구조선의 북쪽 지괴가 북서쪽으로 약 1.5㎞ 이동한 주향이동단층인 것으로 보인다. 이 구조선을 따라 기반암의 풍화 및 침식이 활발하게 발생하여 고도가 주변보다 낮아지고 죽령이 형성된 것이다.

죽령의 북서쪽 골짜기에는 죽령휴게소가 있으며, 죽령휴게소에서 북동쪽 능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죽령탐방지원센터가 있고, 제2연화봉과 연화봉, 제1연화봉을 지나 소백산 최고봉인 비로봉에 도달할 수 있다. 한편 죽령휴게소에서 남서쪽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1,231m봉을 지나 흰봉산으로 이어진다. 과거 죽령 옛길은 소백산을 가로질러 넘어야 했기에 많은 골짜기를 돌아가야 했다. 조선시대 봇짐장수들과 서울로 과거길을 떠나던 선비들은 마치 갈 지(之)자를 그리듯이 돌아 죽령을 넘어갔다. 그러나 1942년 중앙선 철도가 생기고 2001년 중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죽령 옛길은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다. 현재 죽령을 지나는 도로는 국도제5호선이 있고 죽령의 북동쪽 사면에 죽령터널을 뚫어 중앙선 철도와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죽령 옛길[151,115㎡]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어 2007년 12월 17일 명승 제30호로 지정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영주문화대전)




嶺南關門竹嶺
여기까지 慶尙北道
榮州市 입니다
자투리경제


충청매일


도솔봉(1,314M)
제2연화봉(1,357M)
연화봉(1,383M)
국망봉(696M)
죽령주막
희방사 입구
죽령검문소
희방폭포
죽령옛길
연화봉직등길
죽령터널
희방사역
5
영주
영주(중앙선)


단양IC
죽령옛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모곡사지
터널환기굴뚝
옹부밀리
죽령담방지원센터
죽령측계소
생태공원
죽령주막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희방주점단지입구
성금리
삼형제봉
주점터
죽령터널
3지락사작
도솔봉
(1316)
주막촌
소백산역
무쇠다리터

작성산/황장산(역사성2, 인지도5, 접근성6, 연결성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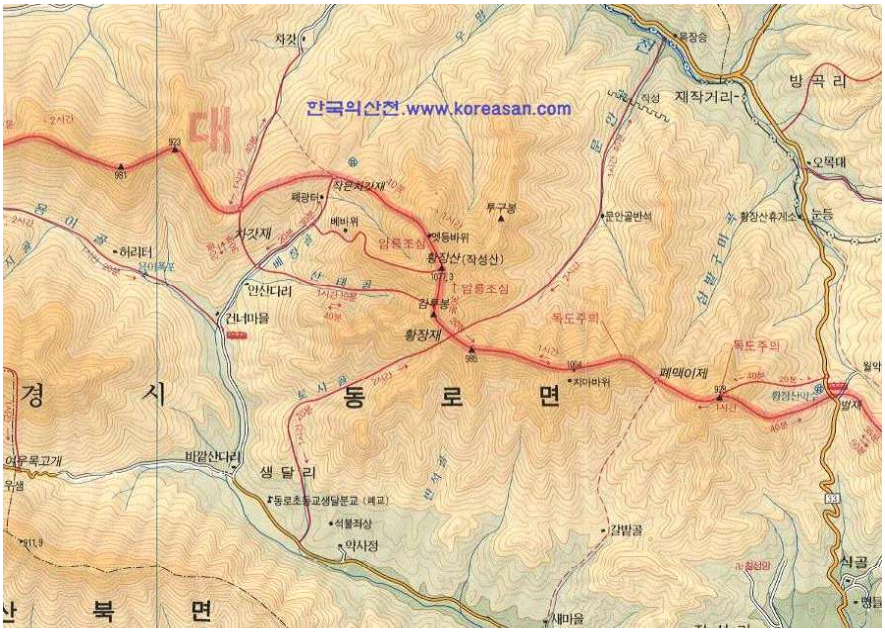


황장산(黃腸山)은 경상북도 문경시와 충청북도 제천시에 걸쳐 있는 높이 1,077m의 산이다.
원래는 황장산에서 자라는 금강송을 '황장목'이라 하였지만 우수한 금강송을 여러산에 이식하여 장려한 관계로 금강송(金剛松)을 '황장목'이라고 칭하고 있다. '경북 봉화를 지나 울진으로 접어들면 사방이 소나무숲으로 변한다. 원래 울진군 서면이었던 '금강송면'이다. 금강송은 색이 붉어 적송(赤松), 늘씬하게 뻗어 미인송(美人松), 봉화의 춘양역에서 운반돼 춘양목(春陽木), 속살이 특유의 정결한 황금빛을 띠고 있어 황장목(黃腸木)으로도 불린다. 붉은 빛 표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딱딱해지며 밑둥치부터 회색으로 변하고, 육각형의 거북 등딱지 모양으로 변한다.
황장산을 비롯하여 두타산, 청옥산, 태백산, 치악산, 속리산 등 여러곳에 분포되어 있고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에 금강소나무숲길이 있다. 산림청이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1호 숲길이다. 금강소나무와 희귀 수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후계림을 조성하고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답게 2274ha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에 수령 30~500년 된 금강송 160여만 그루가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들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사계절 인체에 유익한 물질인 피톤치드가 쏟아진다.
숲길은 조선시대 숙종(1674~1720)때부터 관리한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십이령 옛길을 두루 품는다. 숙종은 궁궐의 기둥이나 왕실의 관으로 사용되는 금강송을 보존하기 위해 황장봉계 표석을 세우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소나무를 베면 곤장 100대의 중형이 내려졌다. 그 흔적이 소광천과 만나는 대광천 계곡에 황장봉표로 새겨져 있다.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장군터 인근에 황장봉계 표석이 있다. ‘황장봉산의 경계 지명은 생달현, 안일왕산, 대리, 당성의 4 곳이며 산지기는 명길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금강송(金剛松)은 황장목(黃腸木), 춘양목(春陽木)으로도 불리며 한국이 원산지이다. 일반 소나무와 달리 재질이 단단하고 굵고 길며 잘썩지 않아 궁궐을 짓거나 왕실의 장례용 관으로 사용됐으며 유명 사찰이나 고궁을 복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위키피디아)






한국의산천 www.koreasan.com
차갓
재작거리
방 곡 리
오목대
문장송
작성
923
983
헬리터
보이목포
차갓재
베바위
황장산(작성산)
1071.3
암릉조심
문안골반석
황장산휴게소
눈등
안산다리
간니마을
황장재
985
독도주의
패액이재
치마바위
황장산
경 시
동 로 면
여무목고개
비갈산다리
생 달 리
동로초등교생달분교 (폐교)
석불좌상
악사정
갑밤골
사골
새마을
산 북 면

계립산/하늘재(역사성2, 인지도5, 접근성10, 연결성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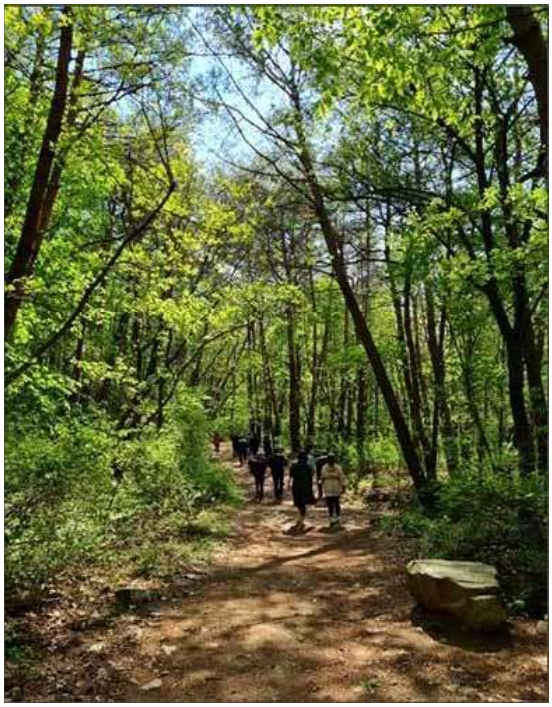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와 경상북도 문경시 관음리를 연결하는 고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하늘재는 156년(아달라이사금 3)에 길이 열림으로써 백두대간을 넘는 최초의 통행로가 되었다. 신라의 마의태자와 덕주공주, 고구려 온달장군 등의 전설에도 등장하는 유서 깊은 고개이다. 고려 말기 왜구가 창궐하면서 조운(漕運)이 육운(陸運)으로 바뀔 무렵부터 지금의 조령(鳥嶺)인 초점(草岾)이 크게 개척되면서 중요성을 잃어 갔고, 임진왜란 이후 본격적으로 조령이 중요한 구실을 하면서 다른 통행로가 폐쇄된 뒤 오랫동안 행인들의 왕래가 끊어지게 되었다.
고개가 하늘에 맞닿을 듯 높아 하늘재라 하였다. 하니재·하닛재 등으로 발음을 달리 하여 부르기도 하였으며, 한자로는 천치(天峙)라 표기하였다. 또한 높은 고개라는 뜻에서 한지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하늘재는 신라시대에 계립령·마목현이라 하였으며, 고려시대에 계립령 북쪽에 대원사가 창건되면서 절의 이름에서 따와 대원령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고개 부근에 한훤령 산성이 있으므로 한훤령이라고도 불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한원령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늘재는 북쪽으로 포암산[962m], 남쪽으로 부봉[925m]과 월항삼봉[847m] 등으로 이어지는 산맥 사이 말안장처럼 움푹 들어간 곳으로, 동달천 지류와 산북천 지류의 분수령이다. 동달천

지류는 하늘재에서 서류하여 수안보면 미륵리를 거쳐 제천시 한수면 송계계곡으로 이어지고, 산북천 지류는 동류하여 경상북도 문경군 문경읍 관음리를 지나 황정마을에서 남류한다. 또한 산북천은 경상북도 문경시 조령천의 지류이므로 하늘재는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 된다.



하늘재 부근에 한훤령산성이 있다. 포암산 쪽에 있는 길이 480m의 석성으로 언제 축조되었는지 알 수 없다. 폭 1.8~2.4m, 높이 1.1~3.7m의 규모로 성벽 주위에서 신라계의 연질 토기와 경질 토기가 발견되었다. 하늘재 동쪽 문경읍 관음리에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50호인 관음리 석조반가사유상이 있다.하늘재 서쪽 수안보면 미륵리 56번지에 있는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는 고려 초기에 조성된 약 80,454㎡ 규모의 대사찰 터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가 당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문화재로는 보물로 지정된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제95호)과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제96호)이 있다. 충청북도 지정 유형문화재로는 충주 미륵대원지 석등(제19호)·충주 미륵대원지 삼층석탑(제33호)·충주 미륵대원지 석조귀부(제269호)가 있고, 충청북도 문화재자료로 충주 미륵대원지 석조보살의좌상(제47호) 등이 있다. 미륵리 안말에서 하늘재를 거쳐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포암을 지나 갈평리에 이르는 곳에 도로가 개설되어 옛길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여름철이면 하늘재 일대의 아름다운 경치와 근처에 있는 훌륭한 불교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다. 2008년 12월 26일 명승 제49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명승으로 재지정되었다.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큰 명승지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충주문화대전)






계림령 유허비
鷄林嶺 遺墟碑


山神各


충주 미륵대원지(입구)
3분
0.2km
3분
0.2km
미륵리 원 터(입구)
하늘재 표석
60분/ 1.5km
충주 미륵대원지 삼층석탑
1분
0.08km
미륵리 불두
5분
0.2km
역사자연관찰로
22분
0.42km
37분
0.98km
연아닮은
소나무
15분
0.4km
하늘재 정상석